

• 신명기 29:1-9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샘을 내신 기적과 만나를 주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나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인생의 길을 쥐려 했습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인생의 향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출 14:11). 내 마음대로 길을 잡고 목적지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흔들리며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경험하면 믿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삶을 볼 때, 은혜를 은혜로 깨닫습니다(신 29:5).

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이 보여 주신 향로를 믿음으로 항해합니까?
- ②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까?